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③
인천보건고등학교 왕지윤 선생님

작은 날개로 세상을 크게 안는 법

구병모 지음, 『버드 스트라이크』



사막 너머 고원 지대에 사는 날개족 익인들이 한밤중에 도시에 있는 시 청사를 때 지어 습격한다. 그 중 소년 '비오'는 경비병과 군인들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해 생포되지만, 호기심에 그를 보러 온 소녀 '루'는 그의 인질이 되어 도시 탈출을 돕게 된다. 구병모 작가의 소설 『버드 스트라이크』는 차별과 약탈, 암투가 가득한 도시인들과 초원조의 신화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려는 날개족 사이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판타지 방식으로 풀어냈다.

차가운 모래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지는 고원 지대와 도시는 대립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태어날 때부터 초원조의 축복을 입고 저마다 새의 영혼이 깃든다는 익인들은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며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는 원시공동체의 모습을 지녔다. 그들의 어깨에서 펼쳐지는 날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의 근원이다.

그에 반해 도시는 과학과 질서의 힘을 신봉하며, 시행이라는 도시의 통치자와 군사력을 보유한 기업체의 연대 속에, 치밀한 권력의 암투가 진행되는 곳이다. 익인들에게서 생산되는 은각안과 우리온의 털, 미과 열매 등을 필요 이상으로 착취하는 약탈경제 속에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벽안인과 익인들을 배척하는 계급사회이기도 하다. 도시와 고원 지대 사이에 놓인 모래사막은 그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비오는 루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마을에서 받아 오던 차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열여덟 살이 된 그는 성인식의 일종인 이행식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이자 성인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보여 준 루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루의 입장에서든 비록 비오의 날개를 빌려 이루어진 탈출이었지만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이행식을 치른 것과 같다. 엄청난 상실의 과정을 겪고 난 이들의 성장은,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도약의 과정과 함께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운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본래 버드 스트라이크란,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고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소설에 암시된 버드 스트라이크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이들의 충돌뿐 아니라, 운명적으로 끌리는 두 존재의 강렬한 만남이자 인생을 바꾸는 전환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완의 결말이면서도 아쉬움이 적게 남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 표현에 담긴 운명적인 이끌림 때문일 것이다. “그 어떤 새도 영원히 허공에서만 살 수 없고 언젠가 땅에 내려앉아서 두 발을 디뎌야 한다면, 네가 그의 유일한 영토이니까.”

가상의 설정과 다양한 인물의 목소리가 교차되어 진행되는 도입부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필요하기에, 초반부에는 한 시간에 읽어야 할 분량을 줄이고, 분석과 정리의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엄밀한 구분이 될 수는 없겠으나 대립과 차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각 장이 지닌 서사들을 초점화하여 익히도록 구성해 보았다.

차시	키워드	읽기의 주안점	구분	쪽수
1	대립	배경 / 공간 파악하기	「프롤로그」	3~7
2	차별	인물 / 관계 파악하기	「인질」	13~45
3		가족(루, 비오) ⇒ 익인	「사막」「홀림」	46~89
4		가족(마이) ⇒ 도시인/벽안인	「날개」「미로」	90~158
5	성장	성인식	「절벽」「기포」「상처」	159~228
6		상실, 고통	「그림」「잠입」「개입」	229~276
7		비행	「약속」「비행」	277~291

※쪽수: 창비청소년문학 88 『버드 스트라이크』 기준.

●●● 읽기 전 활동

- 책을 읽기 전 책의 내용에 관련하여 가벼운 생각거리를 제시하고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 모든 활동을 하기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문제를 골라서 해 보거나, 모둠별로 발표해 보게 한다.

1. 날개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자.
2. 자신이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책날개에 소개된 구병모 작가의 작품 중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소개해 보자.
4. 책 표지에서 받은 느낌을 말해 보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지 예상해 보자.
5. 자신을 매혹시킨 판타지 영화나 게임의 매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읽기 중 활동

- 인상 깊은 구절을 옮겨 적게 하거나, 쪽지 감상문에 짧은 느낌글을 작성하게 한다.

1. 책을 읽으면서 만난 인상 깊은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자.

“세상에 왔는데,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게 당신들의 초원조가 말하는 연결과 포용인가요.” (111쪽)

(예시) 이 대사는 루가 지장에게 한 말이다. 비오는 마을에서 환영받는 듯했지만 혼혈이라는 이유로, 순수한 익인의 피를 이어 가야 한다는 이유로 18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이행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을 수 없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외부인인 루가 지장에게 항의한 것이다. 마을에서 정한 약속을 통해 비오를 억압해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서 안 된다는 사실을 지장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조언을 듣고 비오를 완전한 익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난 그 어떤 익인도 항의하지 않은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외부인인 루가 말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행식을 하게 된 비오는 험난한 절벽을 비행하면서 자신이 작은 날개를 가지고도 더 멀리, 더 높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어서 더 멀리 날아가. 네가 원하는 만큼, 어디까지든. 지금, 내가 가. (304쪽)

(예시)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다. 루가 다른 곳으로 떠난 비오를 찾아가기 위해 유영기 조종사가 된 것이 루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여행을 떠난다는 게 첫 부분의 소심했던 루의 모습과는 대비되어 보여서 더 인상 깊었다.

2. 책을 읽을 때마다 쪽지 감상문을 작성하고, 책이나 A4 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 쪽지 감상문은 10분 독서처럼 짧은 시간동안 책을 읽도록 하고, 독서일지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짧은 분량의 쪽지글을 작성하게 하는 양식이다.
- 일반 A4 용지에 작은 크기로 만들 수도 있지만, 포스트잇에 인쇄하여 배부하면 책의 여백이나 해당 페이지에 부착하여 기록을 누적시킬 수 있다.
-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쪽지 감상문을 게시판이나 칠판에 부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수 있고, 친구들의 감상을 공유하게 할 수도 있다.

(예시)

☆ 읽은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책 제목 : ☆ 지은이 :

☆ 읽은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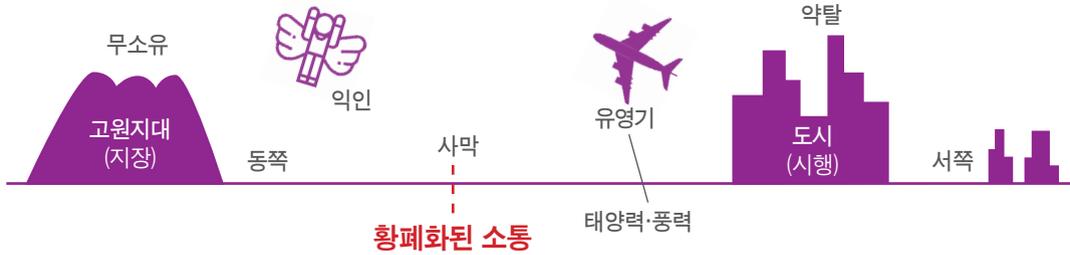
★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나는 한국소설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을 읽는 것이 처음이어서 많은 기대를 가지지 않았었는데,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이 소설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익인과 도 시인이라는 설정도 독특했고, 너무 가벼운 내용도 아니어서 더 재미있게 읽은 것 같다.

●● 읽기 후 활동

- 제시된 활동을 풀며 짝꿍과 함께 또는 모둠별로 생각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1.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고원 지대와 사막, 도시로 구분하고 관련 단어를 적어 보자.



- 단어를 찾는 활동이라기보다 대립된 공간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단어가 모였을 때 단어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도 있다.

(예시 단어) 은각마, 우리은, 은각안, 감미, 미과, 홀림목, 이행식, 지장, 금곡조, 맥고, 비행의 절벽, 유영기, 산소총, 시행, 평화, 착취, 수탈, 경비병, 군대, 연구소

2. 말풍선의 대사가 누구의 것인지 말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자.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실내라 해도 어딜 가든 갖춰 입고 다녀라.
그리고 누구한테든 인사는 바른 자세로 해라. (25쪽)

우리아말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 자기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인간과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20쪽)

게다가 나는 귀한 아가씨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실수인 척 그대로 나를 쏘아 버릴 수도 있었어! (53쪽)

당분간 시행을 포함해서 시청의 어떤 인간이 접촉해 와도
저한테 연락 넣지 마세요. (68쪽)

3. 루와 비오를 중심으로 인물관계도를 만들어 보고, 빈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 두 인물을 비교해 보자.

루 (15세)	비오 (17세)
(아미라)	시와
전(前) 시행	(다니오)
(휴고와 탄)	지오와 가하
외할아버지	다니오
(두 인물 모두 경계인처럼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고 지낸다. 이복형제가 있으며, 얼마 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의 이픔을 가지고 있다. 각각 유영기와 날개를 통해 하늘을 날고 성장한다.)	
자신이 아닌 비오를 위해 용기를 내고, 마을에 내려오던 비오의 계를 깨뜨린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렬하다.

4. 다음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소설에 나타나는 차별의 관계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A가	B를		이유
도시인이	익인을	차별한다 /증오한다 /무시한다	
도시인이	벽안인을		
익인들이	외부인을		
휴고가	루를		
지장이	비오를		
벽안인이	익인을		
마이가	아버지를		

(2) 뉴스를 통해 접하는 또 다른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5. 소설에서 루와 비오의 비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6.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버드 스트라이크'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제목인 '버드 스트라이크'가 비오와 루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버드 스트라이크는 새가 비행기에 부딪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데, 날갯짓으로 앞을 향해 가는 비오와 유영기를 조종하며 그를 찾아갈 루가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완벽하게 정해진 결말이 아니기에 나에게 더 긴 여운을 남겨 줄 것이다.

7. 비오가 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지 떠올려 보고 편지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